

벚꽃·개나리·수선화...봄꽃 찬란한 목포로 오세요

목포시가 추천하는 봄꽃 명소
유달산 수선화 노란물결 장관
삼학도 각양각색 황홀한 톨립
바다 배경 야경 어우러져 감동

“봄 꽃 찬란한 목포로 오세요.”
목포시가 화사한 꽃들이 도시를 물들이며 봄의 절정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 명소를 추천했다.
유달산은 봄의 문을 여는 수선화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다.
노적봉에서 유달산조각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수선화와 개나리, 벚꽃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봄 풍경을 선사한다.
특히 이 구간은 사진 촬영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봄날 인생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유달산 일주도로 역시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어민동산에서 목포해양대학교를 지나 유달유원지로 이어지는 길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벚꽃이라는 특별한 매력을 자랑한다.
낮에는 봄바람과 함께 낭만을 즐기며 해 질 무렵엔 벚꽃과 야경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이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삼학도에서는 다채로운 톨립이 화려한 색채로 봄을 수놓고 있다.
톨립 정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연인들에게



목포시가 화사한 꽃들이 절정을 이루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 명소를 추천했다. 목포유달산 벚꽃 전경.

〈목포시 제공〉

인기 있는 산책 코스로 삼학도 수로와 꽃이 어우러진 여유로운 공간에서 도심 속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입암산 옛 동광농원 일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숨은 벚꽃 명소다.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오르면, 키 낮은 벚나무가 줄지어 있어 마치 벚꽃에 파묻힌 듯한 느낌의 감성 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목포시 관계자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

른 아름다움을 지닌 꽃들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전할 것”이라며 “봄이 머무는 목포에서 꽃길 따라 걸으며 일상의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해수부 양식단지 조성 공모 선정
150억 투입 지도읍 2027년 완공

신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150억원(국비 75, 군비 75)이 투입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청년어업인 진입 장벽을 완화, 신규인력 안착과 함께 어촌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도읍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인근에 왕새우 기반의 육상 스마트양식장을 조성, 매년 8~16명의 청년어업인에게 연간 8000만원의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친환경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렉, 순환여과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재해 위험성을 낮추고

최적의 성장조건 도출, 활용해 신규 어업인의 양식 성공 확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부지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400억),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60억), 왕새우 FPC(60억) 등이 조성중에 있어, 종자 공급, 사료 생산, 양식, 유통·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로 새우 양식 산업의 전 과정을 갖추게 된다.
신안군 왕새우양식은 2024년 기준 281여가(807ha)에서 3490여 t(500억원)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귀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거주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새우양식장 전경.

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투입

지역 활력·인구 감소 대응

완도군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을 투입해 지역 활력 증진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완도군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복합 문화 공간인 키즈 카페를 조성한다.
해조류 등을 활용한 블루푸드 장업 기업 지원,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야간 운행, 해양 치유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치유 숙소 조성 등도 추진한다.
군은 현재까지 총 462억 원을 확보해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만원 상가 조성, 노후 넓도 급수시설 확충,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도서민 건강 돌봄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했다.
노화, 소산, 보금 생활권 통합을 위한 연도교 건설과 농산이촌 미래 희망단지 조성, 의료 취약지 인공 신장실 확충, 마음치유센터 조성 등의 사업은 진행 중이다.
군은 내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 사업 효과성이 높은 중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 현상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전경.

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지역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개물림·킥보드 사고·온열 질환까지...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27개→40개 전남지역 최대

해남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군민 안전을 보장한다.
해남군은 군비를 투입해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군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특목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해까지 총 191건, 9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 재난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군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다.
올해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27개 항목에서 40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요 신규항목은 사고빈도가 높은 상해부분에서 상해사망 및 후유장에서 500만원 보상을 비롯해 골절수술비, 강력폭력범죄 등이 추가됐다.
특히 개물림 사고시 최대 2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1000만원 등을 비롯해 자연재해 진단위로금 20만원, 온열질환 진단시 1회 10만원의 진단비를 보장하는 등 군민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항목으로 총 13개 분야를 추가했다.
2025년 군민안전보험은 4월 1일부터 갱신돼 운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안전안심도시 해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도내 최대항목, 군단위 최고 가입액까지 확대했다”며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안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고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민 안전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범위 넓히고 보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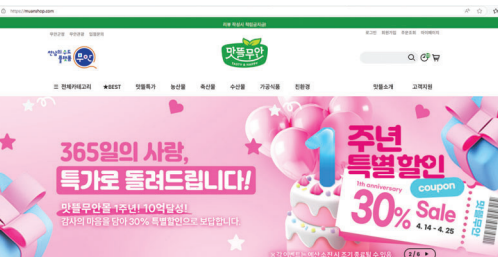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박차

해남군이 2024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군단위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해 시범 운영했던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

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보상보다는 일상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

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 중점 과제 발굴, 부서·기관 간 협업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이디어 공모 제안과 적극행정 홍보 동영상 출연, ‘적극행정 ON 국민추천’ 등 새로운 적립 기준을 추가해 운영 범위를 한층 넓혔다.
또한 보상 점수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해 일정 마

일리지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여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보상과 응원의 의미를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며 “군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맛플무안몰’ 1년 만에
매출액 11억원 달성
전 상품 30% 감사 할인

무안군은 농특산물 쇼핑몰 ‘맛플무안몰’(사진)이 개장 1주년을 앞두고 누적 매출 11억원을 돌파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문을 연 ‘맛플무안몰’은 양파, 쌀, 고구마, 장어 등 다양한 농특산물 인기로 누적 주문 2만 5000여건, 매출 11억원을 달성했다. 군은 이를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기획전을 개최한다.
전 상품 30% 할인 쿠폰을 1인당 3매 지급하며, 19~20일 열리는 ‘2025 온남에서 돈·세·고(돼지·세발나물·고구마) 놀자!’ 축제와 연계한 고구마·돼지고기 40% 할인 쿠폰도 1인당 3매 지급된다.
오는 11일까지 ‘맛플특가’ 행사를 통해 간마늘을 3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4월 한 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2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플무안몰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농가 소득에 이바지하는 든든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1주년을 계기로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최고 춤꾼 신안서 가린다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서
27일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신안군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 주무대에서 ‘2025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2025 피아노 섬 축제’에 맞춰 진행된다.
지난 3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총 38개 팀(일반 22팀, 학생 16팀)이 신청을 마쳤으며, 온라인 영상을 통해 16일 본선 진출 20팀(일반 12팀, 학생 8팀)이 가려진다.
본선은 27일 오후 2시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경연은 팀별 5분 내외의 단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경연에서는 최종 시상자 12팀을 선발한다. 일반부 시상상은 대상 2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장려상 100만원(4팀)이다.
학생부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2팀)으로 총 5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에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해니킴(안무), MO.B(안무), HOZIN(스트리트 댄스) 3인이며, M.NET 스트릿 무먼 파이터2에서 4위를 차지했던 마네퀸이 게스트쇼를 선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은 MZ세대들이 열정을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며 “댄스 경연뿐만 아니라 피아노 선율과 함께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11~13일 유채꽃 축제

진도군은 조도면 관매도에서 봄의 향기 가득한 ‘보배섬 유채꽃 축제’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린다고 밝혔다.
‘오메! 관매도에 봄 왔어라’란 슬로건(구호)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관매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정취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채꽃 축제는 지난해 9개소에서 열린던 것과 달리 주무대를 관매도로 변경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만개한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명당(포토존)과 관매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관매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축제 기간에 여객선을 증편 운행해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매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